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 오늘 새벽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1.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종교 역사>도 그러하고, <사회 역사>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하다.
2.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먼저 겪는 것>은 ‘순리의 법칙’ 이다.
3.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강해진다. 그리고 ‘목적을 행해 가는 길’ 이기 때문에 희망차다.
4. <큰일>은 큰 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5. <세상>을 봐도, <신앙의 세계>를 봐도, ‘큰일’ 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가령 <학문>에 성공하려면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올라가야 되고, <경제>에 성공하려면 경제 세계에 도전하면서 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올라가야 된다.
6. <지혜>와 <생각의 판단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어려움을 이기고 가야 된다.
7. <신앙의 세계>에서 ‘환난과 핍박’ 이 왜 일어날까? 자기와 같은 생각과 행위를 하지 않으니 반대하고 비웃고, 혹은 몰라서 반대하고 힘들게도 한다. 그로 인해 <마음의 전쟁, 행동의 전쟁>도

일어난다.

8. <새로운 길을 가는 자>가 있으면, ‘구시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자기와 같은 생각과 행위>를 하면 좋아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9.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10. <환난>도 잘못하면 어이없게 당한다. 가령, 자기 앞에 바람이 분다고 하자. 널판자를 들고 가는데, <널판자의 앞면>을 대고 바람을 타면 <널판자의 옆면>으로 바람을 타는 것보다 더 많은 바람을 타게 된다. - 성령님과 성자는 <환난>도 이같이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11.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12. <환난>이 예정됐다고만 하지 말고, 잘 판단하고 대하면서 가야 된다.
13. <평소 때>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몰라줘서 싸우게도 된다. 모든 것을 100% 잘 깨닫고, 알고 해야 된다.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도 많으니, 지혜롭게 해야 된다.
14.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너무 심하게 말을 하고, 어느 때는

무섭게, 강하게 말하기도 한다. <주체가 보는 입장>과 <상대가 보는 입장>은 서로 차이가 많다. 고로 <자녀를 대할 때>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잘 판단하고 대해야 된다.<교회 지도자들>도 그러하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가령 모기가 무는 경우, 자기 몸이 모기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라도 밖에 내놓았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다. 이같이 형제들 간에도 순전히 ‘상대’ 때문에 당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이것을 알고 자기도 잘 판단하고, 알고 해야 된다.

‘생각은 각각이나 목적은 하나다.’ 라는 <화목> 노래 가사처럼 ‘잘하려고 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늘 형제들과도 교통해야 된다.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함’을 받고,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대함’을 받는다.

15. <구시대>는 ‘자기’로 인해 새 시대를 반대하고 핍박했다. 그러나 <새 시대 사람들>은 주와 함께 ‘기다렸던 희망의 길’을 가기 바쁘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다투는 데 시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열차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싸운다고 해서 운전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운전사>는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섭리사 사람들>도 심정이 상하면서도 ‘섭리의 차’를 타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16. 한번은 성자께서 꿈에 보여 주시기를, <다투는 자>의 소리가 안 들려서 보니, 그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행위>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는 길이 비슷하다. 그러나 오래 가다 보면, <행위와 생각과 사상>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은 ‘악인의

길’ 을 간다.

17. 형제끼리 서로 오해하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

18. 풀어야, ‘맺힌 한’ 이 풀어진다.

19. 하나님 앞에 풀고, 주님 앞에 풀어야 된다.

20.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영이 사망에 있다.

21. 선생이 20대 때, 기성 교회의 교인과 다툰 일이 있었다. 그때 꿈에 보니, 내 영이 뽕뽕 묶여서 옥에 잡혀가고 있었다.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잡혀가느냐고 하니,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한 바가 됐다고 했다. 그때 성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형제를 미워한 것을 회개해라. 말씀을 지켜라.” 하셨다. 고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했다.

22. 형제들과 다투면 <다툰 것>이 ‘미움’ 이 되고,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한 바’ 까지 된다. <생각 실상 세계>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생각이 실상이 되어 그 영이 ‘사망권’ 에 거하게 된다.

23. 형제들이 미워할 짓을 했어도, 미워할 문제가 있어도, ‘그 처지와 환경이 있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용서해 주어라.

24. <선생>도 그동안 미워할 것이 많았다. 그런데 미워하다 보면 살인한 바가 되고, 내 갈 길을 못 가서 영도 육도 묶이게 되니,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왔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 버리면, ‘무관심’ 이 되어 하늘 법에 걸려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의 삶’ 으로 시대를 살아가고, 또 환난 때 형제들도, 사랑하는 자들도 잡아 주면서 왔다.
25. 환난 때는 각종으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성자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 목적지’ 로 가야 된다. - 이같이 역사를 펴 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26. <섭리사>에 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만나고 휴거를 이뤄서 ‘섭리길, 신부 길’ 을 가고 있으니, 늘 ‘너그러운 마음, 기쁜 마음’ 으로 갈 길을 가라.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매인 바 되고, ‘완벽한 기쁨의 세계’ 가 오지를 않는다.
27.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사탄을 떠나가게 해야, 마치 좋은 가을 날씨같이 이상적인 세계가 된다.
28.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를 대하듯 모두를 대하면, 다 풀린다.
29. 주를 대하듯 대하여라.

30. <주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듯 쫓아라.
31.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평온한 일들도 목숨 걸고 했으면, 다 했
을 것이다.
32.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 왜? 주가 와서 실제 대
면하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33.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주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주’ 만 오면, 분명 달라진다고 기다린 것이다. 고
로, <월명동의 나무와 바위>도 달라지지만, <주와 신부들 사
이>에 달라짐이 있어야 되고, <하늘과의 관계에 달라짐>이 있
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왔어도 그 전과 똑같으면 저들이
‘기다린 소망’ 이 뭐가 있겠느냐. 기다리던 소망이 안 이뤄지
면, 화병이 나는 것이다. 같이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멋있게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야 된다.” 하셨다.
34. <인생 최고의 목적과 희망>은 ‘생명나무 앞에 가는 것’ 이다.
<생명나무>는 메시아다. <메시아 앞에 최대 가까이 가는 것>이
‘소망’ 이다.
35.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면, 팔자가 달라진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완전하게 끝난다.
36.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른다.

37. 언제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지 모른다.

38. <선생>만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 낮은 단계’다. 주를 통해 하나님을 같이 만난다.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잘해야 된다.

39. <환난>이란 크게 보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도 있다. 이 같은 일은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다. 청교도혁명, 구교와 신교의 30년 전쟁,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자들과 못 가는 자들의 싸움 등이다. 섭리사 안에서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

40.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주가 원수를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야 사탄, 마귀한테 묶이지 않는다.

41. 묶이면, 자기 손해다.

42.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뜻이 있어서 그로 인해 연단받고 더 악착같이 뛰게 하는 것도 있으니, 모두 풀어 나가면서 해라.

◎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며 하루 일도 열심히 하도록 축복합니다.